

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탄력성 · 가족탄력성 · 지역탄력성에 관한 연구

신 혜 경(울산대학교 석사) · 김 영 주(울산대학교 교수) · 송 연 숙(울산과학대학 교수)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 가족이 증가하고 가족의 해체가 많아지는 현 시점에서 유아의 탄력성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탄력성을 함께 고려하고 이에 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물질 자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 교사의 탄력성에 관한 인식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보육시설의 아동과 가족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요소로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가 유아탄력성 · 가족탄력성 · 지역사회탄력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교사의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교사교육 전략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0시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이다. 검사 도구는 Boehm, Wertlieb, Bendori, Fishman(2007)들의 Building Resilience among children at Risk 도구와 국내의 선행연구(김미옥, 2001; 박유숙, 2001; 박은희, 1996)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다중응답, 일원배치 분산분석, 요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들은 아동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 줄 아는 희생성을 유아탄력성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유아탄력성의 특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장한 Blockrhk Block(1980)과 정서적 안정을 주장한 고민숙(2002)의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Boehm, Wertlieb, Bendori와 Fishman(2007)들이 주장하는 낙관과 희망, 성격적 안정성, 희생성과 자진성, 의욕, 대인간의 의사소통이 유아탄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인 어머니들이 가족 탄력성의 주된 요인으로 가족간의 믿음과 애정, 응집력이라고 인식한 결과는 Boehm, Wertlieb, Bendori와 Fishman(2007)들이 주장하는 지지와 사랑, 결합성과 친밀감, 효과적 의사소통, 강화와 융통성을 가족탄력성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고, 가족탄력성은 가족끼리 서로지지하고 사랑하며, 돈독한 애정과 서로의 믿음, 결속력이 있다는 고혜진(2005)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가족탄력성은 높은 결합성을 보인다는 McCubbin 등(1988)과 유사하며,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숙함을 강조한 Banerd(1994), 가족탄력성을 따뜻함, 애정, 응집력, 헌신, 정서적으로 지원해줄 친척이 있다고 주장하는 McCubbin과 McCubbin(1988)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상과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가족탄력성의 특성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릴 때 개발되어 평생동안 지속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응집력과 가족 간의 애정 및 믿음에 대한 인식은 가족탄력성의 특성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특성들이 지속되어 자녀를 더욱 탄력적이 되도록 돕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